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0년 10월 2일 (금)
...(음력 8월 16일)..
Пятница
2 октября 2020г.
№ 39 (116906)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9월 26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연기됐던 광복절 기념 행사가 가가린공원 <코스모스> 경기장에서 열렸다.
(관련 기사 3면)

(배순신 기자 촬영)

10월5일은 국제 교사의 날 친애하는 교사 여러분!

스승의 날을 맞아 여러분께 진심 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은 쉽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기때, 여러분은 존경과 감사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사의 편안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며, 모범적인 교육 관행을 지원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학교를 세우고, 현대적 장비를 갖추고, 선생님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여러분은 빠르게 새로운 형태의 교육으로 전환해야 했고, 화면을 통해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고, 때로는 근무일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높은 수준의 교육 과정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역의 교육 기관에서 갓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학기, 약 170명의 대학 졸업생들이 사할린 지역의 학교에 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또 다른 39명의 전문가들이 시골교사 프로그램에 따라 처음으로 사할린에 왔는데, 이들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교사들을 시골의 학교에 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준 높은 지식을 얻고, 지역에서 수요가 높은 전문분야를 마스터하고, 각자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큰 노고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직업적 성공과 가정의 안녕, 그리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다시한번 스승의 날을 축하합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제24회 사할린 석유 가스 국제 컨퍼런스 진행

지난 9월 30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콩그레스 홀(<스톨리차>쇼핑비즈니스센터)에서 제24회 <사할린 석유가스>국제컨퍼런스가 막을 열었다. 기조연설을 한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지사는 "2020년은 전 세계 석유 및 가스 산업의 위기였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심각한 유가 하락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역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탄화수소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5~8%까지 초과했다. 이는 매우 값진 결과"라고 표명했다. 그는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할린-1·사할린-2 컨소시엄 오퍼레이터들의

환경에 대한 책임감에 감사를 표했다.

연방당국과 주요 기업(가스프롬, 엑손모빌러시아, 셸, 사할린에너지)의 수장들이 본회의에서 발언했다.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사할린에서 진행된 컨퍼런스에는 약 300명이 참가했는데 이들은 러시아, 일본, 중국, 영국의 석유 및 가스 산업의 선구자적 전문가들이다. 포럼 현장에서는 사할린과 극동지역 전체의 석유·가스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전략적 해결책을 심의하고 국제협력이 강화된다.

(본사기자)

행사가 많은 10월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대중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다. 사할린주한인협회는 이번 10월에 사할린한인들에게 관심사가 될만한 행사를 주최한다고 알렸다.

10월 2일 - 러·한 수교 30주년을 맞아 사할린한인문화센터 부근 <아리랑>소공원 착공식으로 나무심기(주정부 및 유즈노사할린스크시행정부 관계자 참석); 10월 5일 - 사할린 동포 희생자 추모 행사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문화센터 앞 위령비, 포자르스코예 27인 한인피살자 추념비); 10월 10일 - 잔류 1세들을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 (우글레고르스크 시); 10월 17일 - 제4회 <한 가정에서>민족간 축제 (코르사코브 시); 10월 24일 - <장인들의 도시>문화체험 축제 (활동교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 10월 30일 - 김치축제(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

그 외, 러·한 수교 30주년에 맞는 한글날 기념행사로 10월 9일 한국어말하기 대회(사할린국립대), 10월 10일은 산업혁명 시대의 사할린 한국어 교육 방안 모색 워크숍(사할린국립대)이 펼쳐진다고 전해졌다.

(본사기자)

새고려신문

2021년 상반기 신문주문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1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551루블리 10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단신

유즈노사할린스크, 조립식 주택 건설 논의

9월 29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린 국제 과학 및 실무 회의에서 섬 지역과 극동 지역의 조립식 주택 건설 문제가 논의되었다.

러시아, 독일, 핀란드, 일본, 홍콩에서 온 120여명의 전문가들이 이 행사에 참가한 가운데 건축자재 생산의 혁신기술, 지진이 많은 지역에서의 작업 특성, "스마트" 도시 설계 및 기타 문제가 논의되었다.

또한 지진 위험에 대한 내진 건설 기술도 고려했다.

사할린 주민들, '북쪽의 보물' 전시회에서 수상

사할린주가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북쪽의 보물. 2020 러시아 거장과 예술가>국제전시회에서 <지역 전시 코너>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통의 섬 사할린> 전시코너는 남쪽의 여름 주거형태인 케-라프 형태로 만들어졌다.

민속작품경연에서 사할린 대표들은 약 20개의 상을 받았다. 오시포와 베로니카는 '공예 기념품'(지역 및 국가 기념품) 부문에서 우승했고, 안나 도로페예와는 '전통 의상'에서 동메달리스트가 됐다. 사할린 주민들은 새치껍질 제품, 국가 보석, 가족 제품, 목제품 등 다른 부문에서도 수상하였다.

우리 기타가와가 사진 공모전에서 우승했으며 레즈니크 헤자는 '민속 요리' 미식 대회에서 2위를 차지했고, 「북부 유목민」 축제에서는 양상블 「맹구메 일가」가 3위를 했다.

러시아 패럴림픽 수영팀, 사할린에서 훈련 진행

러시아 장애인 수영 국가대표팀이 유즈노사할린스크에 도착해 2021년 도쿄 장애인올림픽을 대비한 훈련 과정을 밟았다.

대표팀은 이번에 두번째로 사할린을 찾았다. 지난 3월, 선수들은 사할린의 신규 수상 스포츠 단지에서 훈련을 했다. 이번에 국가대표팀으로 선수 37명과 코치 및 전문가 19명, 총 56명의 대표단이 사할린에 방문하였다. 이들은 10월 18일까지 사할린에 머물 예정이라고 주스포츠부에서 보도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1만6천 어린이들 독감 예방

9월 8일부터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 캠페인이 실시되고 있다. 현재 유치원과 학교뿐 아니라 의료기관에서도 열리고 있다. 이번 주초까지, 1만 6천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이미 독감 예방 접종을 받았다. 예방접종 캠페인은 10월 말까지 계속되지만, 의사들은 독감 유행기간 시작전까지 면역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빨리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10월 5일 - 국제 교사의 날

"학교는 지루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적극적인 반응이 마음에 듭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동양김나지아 정혜경 한국어교사

코로나19 확산 위협으로 현재 외부인은 학교 출입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인터뷰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화요일 저녁 사할린한국교육원을 찾았다. 바로 이곳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 동양김나지아 한국어교사 정혜경(30)씨가 한국어강사를 맡고 있다. 그가 맡은 한국어 기초 입문반 수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수강생들은 줄줄이 궁금함을 표명했다. '이 받침은 왜 이렇게 써야 하는가, 지난번 결석을 했는데 특별히 숙제를 해야 할 것이 있느냐, 자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등등 질문이 쏟아졌다. '아, 이 반 친구들이 정말 한국어 학습에 관심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혜경씨는 이미 3년 동안 유즈노사할린스크 동양김나지아 한국어교사로 활약하고 있다. 첫 1년간은 보충교육 교사로서 과외 수업으로 학교 내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3-4학년 초등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쳤고, 2018년에는 정식으로 한국어교사로 채용되어 현재는 5, 6, 7, 8 학년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혜경씨는 사할린국립대에서 외국어교사(한국어) 자격 졸업장을 받았지만 자신이 교사가 될 줄은 상상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모교에서 일할 줄은 더더욱 몰랐다.

우글레고르스크 출생인 그는 초등시절때 유즈노사할린스크로 이사

왔고 8학년부터 학교 졸업까지 제9동양어문학교(현 동양김나지아)에서 공부했다. 그 당시 한국어를 2학년배우고 있었으니 동창생 따라가기가 바빴다. 처음부터 한국어를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혜경씨 같은 학생들을 위해 오후 보충수업반이 있었고, 또한 혜경씨가 동생이랑 친 할아버지에게서 한국어 기초를 이미 배우고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애기 도중에 혜경씨의 할아버님이 사할린한인사 연구로 잘 알려진 정태식 웅이신 걸 알고 무척 반가웠다. 정태식 선생님은 우리 신문에 많은 기사를 투고하고 대중에게 동포 아픈 과거사를 전하려고 노력하신 분이시다.

혜경씨는 높은 책임감,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는 면에서 할아버지를 많이 닮은 것 같다.

학교 졸업반 일때 그는 앞으로 어떤 전공을 선택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런데 2006-2007년에 졸업반때 그는 처음으로 한국어로 가게 되었다. 그때 사할린에서 한 100명의 학생들이 한국어에 갔었는데 한국에서 보낸 그 며칠이 혜경씨의 운명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다. 한국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조국에 대한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더군다나 K-팝에 대한 관심도 한몫을 하였다.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바로 사할린국립대 한국어과에 입학했다.



그녀는 항상 성실한 학생이었다. 중학교도 우등생으로 졸업하고 대학은 최우등으로 마쳤다. 5년간의 사할린 대학 시절은 쓴 살처럼 지나갔다.

3학년때 교환학생프로그램으로 부산 외국어대학에서 유학한 적이 있었다. 그때 부산이 마음에 들어 대학을 졸업하고 계속 유학을 꿈꾸었다. 2012년 6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2013년 봄에는 사할린한국교육원을 통해 장학인재양성프로그램으로 동서대학에서 제2 전공으로 국제물류를 선택하여 2년간 공부했다. 유학은 매우 유익했다.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외국인끼리 많은 교류를 할 수 있었고, 여러 나라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어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었고 한국문화 체험도 많이 할 수 있었기에 후에 통역 아르바이트에도 도움이 되었다.

동서대를 졸업한후 한국에서 바

로 무역회사에 취직하여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해왔다. 그러나 2년후의 어느 날 지쳤다는 걸 느꼈다고 한다. 무엇보다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 외로워졌던 것이다. 그래서 다 그만두고 사할린으로 돌아올 결심을 했다.

"사할린에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한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들어요. 물론 한국에 놀러 가는 거는 좋아하죠. 전 여기서 사는게 좋아요"라고 정혜경 씨가 말하였다.

혜경 씨는 좀 수줍어 하는 스타일이다. 무대에 올라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학교 교사로서 일하는 것이 마음이 든다 고 한다.

그가 학교, 수업, 학생 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정말 이 일이 적성에 맞았나 보다.

«아이들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수업 시작은 주로 짧은 영상 상영으로 시작합니다. 보통 한국과 한국문화, 한식 등에 대한 비디오거든요. 애들이 많이 좋아해요. 특히 한국을 한번도 가보지 못한 학생들이... 호기심이 눈빛에서 마구 쏟아져요. 수업시간에 프레젠테이션도 합니다. 카드도 이용합니다.»라고 정 선생이 계속 이야기를 이었다.

현대의 교사라면 물론 꼭 인터랙티브교육, 다양한 자료 이용 등 여러

교수법을 써야 한다. 그는 선배인 동 학교 김 나탈리아 한국어 선생과 함께 학생들을 위한 보충 교재도 쓴 적이 있다. 현재 이 교재가 교육자들의 검토를 받는 중이다.

올해 동료 이 왜채슬라브 한국어교사가 군대 복무를 시작하여 교육시간 부담이 커졌단다. 원래 기준은 한 교사당 1주에 18수업시간을 맡아야 하는데 현재 혜경씨는 주에 32시간이다. 5, 6 학년생들을 위한 수업을 이미 작년, 재작년에 한 바가 있어서 수업준비에 그리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지만, 7,8학년생들은 처음이라 훨씬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도 정 선생은 이 모든 준비를 즐겁게 한다.

"학교는 지루하지 않아요. 항상 어떤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리고 학생 대다수가 한국어에 관심이 많아요. 물론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죠. 특히 자주 아프거나 결석을 많이 하는 학생들을 위해 필요하면 따로 보충수업도 마련합니다."라고 정 선생이 소회를 나누었다.

도움이 필요하면 꼭 돕고, 책임감과 신뢰, 진정성을 높은 가치로 여기며, 부모들과는 크로스컨트리 스키, 친구들과 알파인(산) 스키를 즐기고 적극적인 여행을 좋아하는 정혜경 선생은 오늘도 성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블라디미르 산기의 "현명한 물범" 닙혀어로 첫 출간

모스크바에서 '북쪽의 보물. 2020 러시아 거장과 예술가' 국제전시박람회의 일환으로 작가 출생 85주년을 맞아 <사할린 에너지>회사 지원 하에 블라디미르 산기의 '현명한 물범'책 출판기념회가 진행되었다. 이 특별 프로젝트의 특징은 이전에 러시아어, 영어, 프랑스어로 출판되었던 저자의 문학동화 "현명한 물범"이 닙혀어로 처음 출판되었다는 점이다.

포르노이스크의 양상물 '멘구메 일가 - 은빛 무늬' 공연은 물론, 북방 소수민족 <의흐 미프 사람들'민족문화센터)유즈노사할린스크 사회단체 엘레나 니트쿠크 회장이 전통악기로 연주한 곡이 이번 행사에 특별한 재미를 선사했다.

행사 말미에는 참가자들에게 '현명한 물범' 책을 증정했고, 누구나 저자의 사인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책과 함께 닙혀 장인 랩콘 와집이 작은 기념품으로 만든 책 주인공인 물범 나무인형도 받을 수 있었다고 <사할린 에너지> 회사 홍보실이 전했다.

Книга "Мудрая нерпа" Владимира Санги впервые издана на нивхском языке

В Москве в рамках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ыставки-ярмарки "Сокровища Севера. Мастера и художники России 2020" состоялась презентация книги Владимира Санги "Мудрая нерпа", которая была издана при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к 85-летию юбилею писателя. Особенность этого специ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авторская литературная сказка "Мудрая нерпа", ранее опубликованная на русском, английском, французском языках, впервые увидела свет на нивхском.

Особый колорит мероприятию предал ансамбль "Мэнгумэ илга — серебряные узоры" из Поронайска, а также наигрыши на заканга, исполненные Еленой Нит-

кук, руководителе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МНС "Этно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Люди Ых Миф".

В завершении участникам мероприятия была подарена книга "Мудрая нерпа", а все желающие могли получить автограф автора. К книге прилагался небольшой сувенир — главная героиня сказки нерпа, изготовленная из дерева нивхским мастером Вадимом Левкуным, сообщает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유즈노사할린스크, 예비 부모들을 위한 '세상의 중심' 개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세상의 중심>유아·부모 지원 자원봉사자센터가 문을 열었다. 예비 엄마·아빠들은 임신 계획, 임신, 두려움 없는 출산, 모유 수유, 태어날 때부터의 유아 발달, 의식 있는 육아 등에 관한 강좌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상의 중심>센터에서는 심리학자, 신생아 수면상담사, 영양사, 아기띠 상담사, 유아위생전문가, 영양사, 소아 청소년과, 출산준비강사, 요가치료사, 언어치료사, 조기수영강사, 신경정신과 전문의,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센터는 비영리 사회단체인 '세메이나야 아즈부카(가족 알파벳))를 기반으로 문을 열었다. 이 단체는 약 300만 루블리의 대통령 보조 장려금을 지원받아 센터를 개장 할 수 있었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ля будущих мам и пап открыли "Центр мир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ся единый рег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волонтеров поддержки отцовства, материнства и детства "Центр мира". Будущие мамы и папы смогут посетить курсы по темам беременности, планирования беременности, родов без страха, грудному вскармливанию, развитию детей с рождения, осознанному родительству и др.

Кроме того, в "Центре мира"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консультацию психолога, консультанта по сну новорожденных, прикорму, слингоконсультанта, специалиста по гигиене младенцев, нутрициолога, педиатра, инструк-

тора по подготовке к родам, йоготерапевта, логопеда, инструктора по раннему плаванию, нейрографа и юриста.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центр открылся на базе некоммерче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емейная азбука". НКО выиграла президентский грант на сумму около трех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что позволило арендовать помещение и открыть "Центр мира".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 리스크 게임에서 승리

9월 25일, <승리>기념박물관에서 사할린청년자원센터와 함께 유즈노사할린스크 청소년들을 위한 가을 단체인 <리스크 (라쉬 - 지적, 인투이치아 - 직감, 스코로스찌 - 속도, 꼬만다 - 팀)>게임을 개최했다.

"러시아는 나의 역사" 역사공원에서 11개 팀이 겨루게 되었는데, 이들은 도시의 학교들, 극동지역철도대학교(사할린 분교), 사할린국립대학교, 관토리움, 그리고 이외 교육 기관의 팀들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은 세 가지 부문 문제들에 답변해야 했다. 문제에는 회화 작품에 관한 팩트, 러시아 역사와 우주비행사, 음악에 관한 사실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지적 경쟁 게임 리스크의 특징은 마지막 구간에서 경기의 점수가 급격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자신있는 주제의 질문을 독립적으로 선택하고, 과제의 '점수'를 두배 혹은 세배로 곱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회에 우승자는 Maxfum팀이었다. '솔방울'과 '역사학과' 팀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시청년이니셔티브센터는 2018년부터 주도시에서 지적 경쟁 게임 리스크를 개최하고 있다. 이 대회는 젊은이들의 시야를 넓히고, 러시아의 역사,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는데 기여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긍정적인 감정과 새로운 지식을 습득했다.

(8면에 계속)

명절 분위기 안겨준 광복절 기념행사

광복75주년과 함께 러·한수교 30주년 맞아

지난 9월 26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연기됐던 광복절 기념행사가 열렸다. 사할린주한인협회의 주최로 이 행사는 광복절 75주년 겸, 러·한수교 30주년 기념으로 치러졌다.

오전 10시 사할린주한인협회, 여성회, 청년회, 그리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관계자들이 〈영예〉광장에서 모인 가운데 광복절을 기리기 위해 성화에 전통적으로 헌화하였다

본격적 행사는 아침 11시 가가린공원(코스모스)경기장에서 펼쳐졌다. BTS(방탄소년단)가 부르는 아리랑 노래가 들리자 무대앞에 나선 사할린 한인청소년역사캠프2020(2차) 학생 35명이 러시아국기와 태극기를 손에 들고 플래시몹을 시작했다. 이들에게 〈하늘〉 타악기 팀이 북으로 반주를 하여 흥이 더 난것 같았다. 진행자들이 행사 개막을 알린 후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학생들의 사물놀이가 시선을 끌었다. 행사는 축사와 공연으로 이어졌다.

이날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사할린주 세르게이바이다코브 제1부지사, 사할린주두마 안드레이 하포츠킨 의장과 의원들, 주블라디보스톡한국총영사관 사할린출장소 광기동 소장, 세르게이 나드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장 민족단체 대표 등이 축가와 환영인사를 했다.

박순옥 회장은 "이번에 코로나9 확산으로 광복절 행사를 미루게 되었지만 이 기념행사가 또한 러·한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행사가 된데 대해 의미가 크다"고 했다.

정부 대표들은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사할린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한인들의 공로가 아주 컸다고 강조했다.

광기동 출장소장은 "75년 전 광복은 우리 한민족 모두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특히, 강제징용 등으로 탄광 등에서 가혹한 노동과 차별 등으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시던 사할린 동포들께서는 광복을 더욱 더 큰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고대하던 광복에도 불구하고, 냉혹한 동서 양진영의 냉전과 한반도의 분단 등 어지러운 정세로 인해 그리운 고향으로 귀향하지 못하고 50년 가까운 세월을 가슴에 한을 품고 북국 사할린의 차가운 삭풍을 묵묵히 견디어 오신데 대해 죄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국과 민족을 사랑하시어 광복절을 성대하게 기념해 오신데 대해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하였다.

이날 광기동 소장은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강화 기여로 주지사와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장의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김경호 씨가 부른 〈멀고도 가까운 한국〉, 최 율리아 씨가 부른 주현미의 곡 〈사할린〉이 이날 관객들의 심장을 울리게 한 반면, 〈에트노스〉한민족과 학생들의 아름답고 멋진 무대, 한인문화센터 소속 〈아리랑〉무용단 공연은 흥을 돋우었다.

2부 공연은 러시아 및 외국 팝노래로 구성되어 무대 앞에는 관객들과 신나는 춤판이 벌어졌다. 이 즐거움을 동포가수인 이 아나스타시아와 이 올가가 선사했다.

공연 동시에 무대 오른쪽에 위치한 다양한 행사장에서 여러 활동이 펼쳐졌다. 한글 쓰기, 부채 그리기 등 활동교실, 한민족 전통 의식 전시회, 태권도 경기와 씨름 축제 등이다. 사진전시회도 마련되었는데 가끔 부는 센 바람으로 사진들이 넘어져 주최측(사할린주한인협회)이 전시회를 취소했다.

이날 모든 관객들은 주최측이 마련한 떡 작은 봉지를 받기도 했다.

이날 활동교실은 사할린국립대 역사·어문·동양학 대학(학장 임 엘비라) 교수와 학생이 맡았고, 태권도 경기는 〈오스트로브〉무술센터(관장 안수학), 씨름 축제는 사할린주씨름협회(회장 춘 알렉세이)가 진행했다. 이 활동 참가자와 관중 모두가 아주 만족해 했다.

태권도 경기는 주로 초·중·고등 학생들이 참가했고, 씨름 개인전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씨름축제에는 100여명이 참가했는데 경기는 팀별 경기와 개인전으로 나뉘져 있었다. 팀 경기에는 8팀(각 팀 7명,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두 팀, 홈스크시 두 팀, 네웬스크, 돌린스크, 코르사코브, 아니와)이 참가했는데 우승은 홈스크 팀이 차지했다.

항상 인기가 많은 씨름 개인전이 이번에도 많은 눈길을 끌었다. 특히 90kg이상 선수들의 경기가 만만치 않았다. 최종 결승전에 나간 김 알렉산드르(105kg, 소콜 마을)와 바로토프 시 예라트쇼(140 kg, 타지키스탄)의 승부가 정말 드라마틱 했다. 1:1이었다가 결국엔 기술이 좀 부족해 동포들이 열렬히 응원한 김 알렉산드르가 아쉽게 졌다. 알렉산드르는 "1년간 씨름 훈련을 안해서 사실 상을 꿈꾸지 않았어요. 막상 하다 보니 최종전까지 올라왔고 훈련했으면 이길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 씨름 훈련을 다시 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라고 소회를 나누었다. 90kg이하 선수 중에서는 백 에두아르드가 우승



했는데 이를 가장 응원한 사람은 그의 세 어린 자녀들이었다. 이들의 "빠빠(아빠), 빠빠, 빠빠"란 응원소리가 아주 간절하게 들려 관중들도 이 백 아빠를 응원하게 만들었다. 이날 우승자들은 상장과 메달과 함께 상품으로 냉동고를, 2위는 오디오시스템, 3위는 전자레인지 받았다.

보통 광복절 행사에는 1세대 동포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경도 닫혀있어 영주귀국하신 어르신들이 역방문도 못하고, 코로나 확산 위협으로 사할린 잔류 어르신

들도 이번 행사를 많이 찾지 않았다. 대신 50-70대가 행사에 많이 참여한 것 같다. 물론 가족끼리 찾아온 사람도 꽤 있었다. 대규모 행사들이 오랫동안 없었기 때문인지 모처럼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행사가 잘 개최됐으며 많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날 사할린주한인협회, 여성회, 청년회 일부 관계자들은 이날 주지사와 유즈노사할린스크시장의 감사장을 받았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배순신, 유즈노사할린스크시행정부 홍보실)

김남중의 언제나 동화처럼

나의 강원도

시간이 나면 짐을 싸들고 강원도로 간다. 사람 없는 바닷가 골방에 두어 달 틀어박혀 글을 쓰기 위해서다. 곰처럼 겨울을 보낸 뒤 봄이 오면 완성된 원고를 가지고 남도로 돌아가길 벌써 팔년째다.

별러서 도시를 탈출한 사람들이 열광하는 동해바다의 푸른 해방감은 한 시간을 넘기지 못한다. 일상이 되면 제아무리 아름다워도 좀처럼 눈이 가지 않는다. 돌이켜 보니 팔년 겨울 동안 서너 번 일출을 보았다. 여름을 보낸 삼 년 동안에도 돌 던지면 달을 거리에 해수욕장을 두고 발 한 번 적시지 않았다. 그만큼 일만 했다고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변명할 구실이 있어 다행이다.

그래도 강원도에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때가 있다. 특히 남자들의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고민이 된다. 신나는 음악과 하얀 스키 슬로프가 펼쳐진 겨울 리조트, 맥주와 수영복과 백사장이 뜨거운 여름 바닷가가 강원도의 전부는 아니다. 나의 강원도는 텔레마케터마저 반가울 만큼 사람목소리가 그리운 외딴 곳이다.

몇 년 전 겨울, 강원도 고성에는 폭설이 내렸다. 날마다 일 미터씩 내리는 눈 때문에 지붕이 무너질까봐 밤에도 나와서 쌓이는 눈을 치워야 했다. 파문힌 차를 꺼내는 건 그 다음이다. 제설차들이 큰 길을 뚫으면 눈삽으로 작은 길을 치워서 시내로 식량을 구하러 갔다. 즉석밥을 주식으로 폭설과 씨름한 일주일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처마에서 땅까지 이미터가 넘는 고드름이 이어져 동요처럼 발을 엮었고 눈에 파문힌 집은 연탄을 절반으로 줄여도 후끈할 만큼 보온이 잘 됐다. 전기가 끊겨 두꺼비 집을 수리했고 고장 난 온수기를 잘못 손대 펄펄 끓는 물이 번기에 공급되어 괴로웠다. 폭설 덕분에 사람들에게 나의 강원도를 잘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올 여름에는 한 달이 넘게 비가 내렸다. 태어나서 맞는 가장 긴 장마다. 8월초는 바닷가마다 휴가를 오는 사람들로 시끌시끌하기 마련인데 이 글을 쓰는 지금은 날마다 쏟아지는 비와 코로나19 때문에 강원도 바닷가가 쓸쓸하다. 나야 일을 하러 왔으니 놀지 못하는 게 당연한데 다른 사람마저 놀지 못하니 안타까울 뿐이다. 장마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코로나 19는 나쁘다.

광주에서 김남중

사할린 동포에게 드리는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2021" 제작 모금 시작

KIN 지구촌동포연대(이하 KIN)는 사할린 동포들에게 드리는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2021'을 제작하기 위한 온라인 모금을 9월 22일(화)부터 시작하였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은 사할린 동포들이 기일, 생일, 농사일, 손없는 날 등 일상 생활을 음력으로 지내지만, 러시아에서 음력 달력을 구하기 어려워 제작하기 시작했고, 올해로 여덟 번째 제작이다. 러시아 달력에 음력과 절기, 한국의 명절 및 국경일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짧은 러시아어 설명을 넣어 3, 4세 동포들도 전통문화를 알 수 있도록 돕는다.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은 한국의 시민들에게 사할린 동포들을 알리고 공감하기 위한 취지로 온라인 모금을 통해 제작해 왔다. 올해도 카카오 같이가치를 통해 온라인 모금이 한달간 진행되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달력과 함께 마스크도 전달할 예정이다.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은 사할린과 한국을 잇는 교류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포들에게는 무척 반가운 새해 선물이 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과의 교류가 매우 어려운 지금, 고국으로부터의 선물로 동포들이 따뜻한 새해를 맞이하기를 희망한다고 킨이 전했다.

카카오 같이가치에서 온라인 모금 --(http://together.kakao.com/fundraisings/68598)으로 10월 22일까지 진행하며 KIN의 계좌(우리은행 1006-301-227783)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75-ую годовщину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отпразднова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разу две знаменательные даты отмети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30-летие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75-ю годовщину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Торжестве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началось с возложения цветов на площади Славы. Само празднование проходило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на стадионе "Космос", где собрались официальные лиц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 сотни жителей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о знаковым событием горожан поздравили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Андрей Хапочкин,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Присоединившись к поздравлениям, звучащим со сцены, градоначальник отметил, что муниципалитет уделяет самое пристальное внимание развитию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го диалога. И во многом благодаря поддерж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и деятельности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и добрососедские отношения становятся с каждым годом только прочнее.

— Памятные даты, которые мы сегодня отмечаем, дл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и нашего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го города — особенные. Делов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и культурные связи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у нас традиционно крепкие. Отчасти, это связано с тем, что они основаны на общей истории. На протяжении многих лет мы совместно реализуем важнейшие общественные инициативы по сохранению этнической самобытност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которая насчитывает около 26 тысяч жителей. И такие яркие праздники уже стали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ью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города. Уверен, что мы и дальше будем держать курс на сохранение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а также на поддержание и укрепление дружественных партнер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 подчеркнул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В честь праздника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дготовили насыщенную программу — на сцене с колоритными национальными танцами и запоминающимися музыкальными номерами выступали артист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местные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Кроме концерта, для гостей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вели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каллиграфии, традиционной росписи по ткани, искусству ханджи, национальные игры и конкурсы. Также на площадке были организованы выставка народ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национального костюма, предметов быта, сообщает администрац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рамках праздника в этот день прошли такж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тхэквондо (центр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Остров») и фестиваль ссирым (Сахалинская федерация по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е ссирым).

— Безусловно, проведение подобных праздников очень важно и имеет особую ценность как для взрослого поколения, так и для молодежи. В таких мероприятиях участвуют не только корейские ребята, но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руги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которые живут на Сахалине. И такой межкультурный диалог позволяет нам вместе развиваться, духовно обогащаться и просто становиться одной большой и дружной семьей, — сказала Эльвира Лим, член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Три имени сапожника Мен Ха

Цой Виктория

Если помнить, что каждый человек рождается со своим предназначением, то жизнь из череды препятствий и преград превращается в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сть событий, которые нужно прожить с достоинством и пониманием неотвратимости происходящего.

Кто-то рожден, чтобы возделывать рис, стоя изо дня в день на бескрайних затопленных водой полях, кто-то пришел в этот мир, чтобы стать грозным воином, сражаться верным мечом врагов Императора и в расцвете сил пасть от руки противника, а кому-то предназначено глядеть в высокое небо и как открытую книгу читать карту сияющих звезд, произнося нараспев удивительные пророчества внимающим сильным мира сего, а он, Ким Мен Ха, рожден сапожником. Он знал это с самого детства.

Повертев пару обуви в руках и внимательно ее оглядев, он мог сразу сказать — молодым или старым человеком был владелец, высоким или низеньким и даже — что за характер был у человека. Стопанный внутри каблук сообщал о скромности хозяина, стертые под большим пальцем ботинки выдавали человека грубого и прямого, изящные хэ, скошенные от косолапой походки девушки, заставляли его в доброй усмешке покачать головой, и не зря начальник окружн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говорил, что в сапогах, сшитых сапожником Мен Ха, ноги могут прошагать хоть сотню ри и не устать, словно уложены в подушки с лебяжьим пухом.

Ни к чему мечтать о несбыточном, грезить об иной жизни, если любимое ремесло исправно кормит тебя, порой позволяя неподобающе гордиться умением шить хорошую обувь, впрочем — недолго.

Но одна мечта у Мен Ха все же была. Он, тридцатилетний холостяк, вздумал жениться на дочке соседского крестьянина. Девушку он знал с малолетства. Еще ребенком она приносила ему обувь старших братьев и хихикала, глядя, как он резво бьет молоточком, вколачивая гвозди в подошву. Девушка быстро подросла и Мен Ха принялся ждать, когда придет к ней женская луна, чтобы отправить сватов. Со Ен была четвертым ребенком в бедной семье, и он знал, что ее выдадут замуж за него с радостью. Сердце замирало всякий раз, когда он видел ее на улице, а она, завидев его, по обычаю низко склоняла голову, но тут же исподтишка смотрела на Мен Ха своими блестящими большими смеющимися глазами. Он, вспоминая об этом, бил молоточком мимо гвоздя и вскакивал, и тряс рукой, и дул на вспухающий палец.

Мечта его оборвалась в тот самый день, когда жителей поселка согнали на большую площадь в центр деревни и японский офицер, тыкая хлыстиком в стоящих перед ним парней, объявил о вербовке на Карафуто. Коротким криком он пресек начавшиеся причитания и в полной тишине прошел еще раз между рядов выстроившихся.

Взгляд офицера неуловимо изменился и он, чуть раздвинув тонкие губы в сальной улыбке, принялся указывать на женщин. Поравнявшись с Со Ен, ткнул хлыстом в нее. Она подняла на него испуганные большие глаза, и тот, поощрительно оскалившись, кив-

ком головы подтвердил свой выбор.

Ты, ты и ты — призываешься в армию.

Мен Ха очень удивился — какой прок на войне от молоденьких девушек и школьниц? Даже забинтовать как следует не смогут, ни рану промыть, ни поставить иголки, чтоб выпустить дурную кровь. Для таких целей годится бабка Енхай, повитуха и знахарка, что живет на окраине деревни. Вот она стоит, раззявив рот, и глаза ее черными угольками прожигают офицера, идущего вдоль шеренги женщин.

Через полгода семья Со Ен получила от нее весточку. Она удостоилась чести быть солдатом любви, удовлетворяя японских солдат, сражавшихся за величие Империи. Полевой публичный дом следовал за дивизией неотступно и Со Ен считала удачным днем, если к ней приходило меньше десяти человек. Но это случалось редко. Она пользуется спросом, потому что только недавно ей исполнилось четырнадцать лет и воины Императора ею очень довольны.

Мен Ха не помнит, сколько пролежал он тогда. Может неделю, может две. Не хотелось ему ни вставать, ни есть, ни пить. Хотелось только одного — увидеть бы еще разок смеющиеся глаза Со Ен, да разве можно об этом просить у проклятой судьбы? Но однажды он получил этот дар. Она пришла к нему во сне, протянула тоненькие руки, подняла сияющие глаза. Нежный смешливый голосок позвал его по имени и, проснувшись, Мен Ха почувствовал себя почти счастливым. Поворочавшись в постели, он побрел на кухню, нагрел на печке воды, развел щелочь и принялся старательно стирать белье, смахивая соленые капли пота в корыто с кипятком. Потом вымылся сам — и на душе полегчало.

Он женится на ней, когда она вернется домой. Пусть для других она будет грязной японской шлюхой, но для него это не имеет значения. Он знает, что ее душа предназначена для него и точка.

Он завербовался на Карафуто, чтоб не жить во враз опустевшей деревне. На новом месте ремесло исправно кормило его. Немногие люди могли купить новую обувь, а он, поколдовав ночь, давал старым башмакам вторую жизнь, чтобы они еще долго служили верой и правдой своим благодарным хозяевам.

Грех было жаловаться. Его односельчане, совсем юные, гибли в шахтах под угольными завалами, тонули в быстрых речках, сплавляя тяжелые бревна, мерли, как мухи, так и не познав в недолгой жизни женской любви. Он, Мен Ха, счастливчик. Сапожник сочувственно вздыхал, слушая горькие жалобы заходивших к нему знакомых, но потом гнал от себя печальные мысли. Он знал, для чего рожден на земле — быть хорошим сапожником и мужем Со Ен.

К концу войны он успел заработать неплохие деньги и по-прежнему жил один. Длинноязыкие кулаки судачили о нем, подозревая в самых немыслимых пороках, но он только улыбался, каждый день открывал ставни своей мастерской, раскладывал инструменты, ожидая первых посетителей.

Когда на Карафуто пришли русские, он сначала немного разволновался, но быстро успокоился — работы было не меньше. Новые хозяева ставили перед ним блестящие хромовые сапоги или ботинки из яловой кожи, просили поставить подметку или починить обветшалую подошву. Светловолосые солдаты, довольно осмотрев обувь, кидали пару монеток на стол. Мен Ха быстро убирал деньги в карман кожаного фартука и садился дальше тачать, прибивать, клеить.

Однажды в его каморку заглянул невысокий паренек. Протянул пару видавших виды сандалий и на корявом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попросил их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Сапожник оглядел рвущиеся от старости перемычки, заржавевший замок на ремешке и покачал головой:

— Тут ремонтировать нечего. Можно новые ремешки сделать.

Парень взволнованно спросил: — А дорого будет стоить? — и пояснил:

— Я недавно приехал, подъемные еще не дали.

Мен Ха успокаивающе покивал головой, назвал цену и поинтересовался:

— Откуда же вы приехали?

Парень охотно ответил:

— Из Кызылорды. Мои родители жили в Приморье, в 37 году по решению товарища Сталина корейцев переселили в другие советские республики. Мне десять лет было, когда мы переехали, там я закончил школу. Недавно у нас объявили оргнабор на Карафуто. Мне захотелось сюда приехать, посмотреть как тут живут люди. Обещали хорошо платить.

Мен Ха слышал, что советская власть перед войной в три дня выселила корейцев, загнала в теплушки, словно скот, и погнала вагоны через всю страну, поэтому, сверив его судьбу со своей, признал в ней что-то родственное и сказал:

— Если денег нет, занесете потом. Сандалии будут готовы завтра.

Парень просиял, забежал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Через неделю принес долг и вежливо поблагодарил.

Несколько раз он приходил то с порванной сумкой, то с прохудившимися ботинками, и ожидая, пока сапожник стачает крепкие швы, охотно рассказывал о себе. Что его взяли работать переводчиком, что сопки и леса ему больше нравятся, чем бескрайние казахские степи, что люди тут хорошие.

Но однажды он пришел к нему не один. Первым в мастерскую вошел высокий военный в перетянтом португеей мундире, оглядел закопченные стены и заклеенное бумагой окно и, рубя воздух ладонью, произнес короткую речь. Парень, запинаясь, начал переводить. Он сообщил Мен Ха, что тот должен освободить дом. Что больше тысячи бывших японских поданных выселяются в окрестные деревни, а в их домах будут жить прибывающие с материка советские люди. На этом месте голос его отчего-то совался на всхлип, но он быстро оправился под внимательным взглядом военного и, оставившись в угол мастерской, повторил — освободить в двукратный срок.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В сет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аптек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жидается поставка препарата для лечения COVID-19

Лекарственное средство «Фавипиравир» под торговым названием «Коронавир» появится в сет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аптек «Фармация». Приобрести его можно будет уже в октябре. Ранее разрешение на реализацию препарата в аптеч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подписало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Ф.

В стационар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й препарат для лечения COVID-19 применяется с августа этого года. Лекарственное средство показало свою эффективность при лечении пациентов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легкого и среднетяжелого течения. В связи с полученным разрешением росси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епарат закуплен и для розничной аптечной торговли.

— Стоимость препарата определяет производитель. Мы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о минимальной торговой наценке — только для покрытия транспортных расходов. Во всех аптеках сети «Коронавир» будет продаваться по цене 11 500 рублей, — рассказала директор ГУ ОТП «Фармация» Инна Гребенева.

Ориентировочно препарат поступит в начале октября 2020 года. Решается вопрос и о приобретении для аптечной сети региона лекарства под торговыми наименованиями «Арепливир» и «Авифавир».

По информац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Ф, сейчас ведутся переговоры о включении «Фавипиравира» в перечень жизненно необходимых важнейших лекарственных препаратов. После этого на него будет автоматически сформирована реестровая цена с учет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анализа со стороны ФАС Росс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работал первы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центр управления регионом

Информационно-аналитическая платформа позволяет оперативно отслеживать и решать вопросы жителей островов. Специалисты ЦУРа обеспечивают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с органами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через социальные сети.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работы — ЖКХ, ТКО, энергетика, общественный транспорт, дорожное хозяй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экология, образовани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соцзащита. Создание центров ведется по всей стране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крыл новую структуру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Центр управления регионом работает на базе ситу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с помощью которого мы управляли сложными процессами, к примеру, в период пандемии фиксировали заболевших, оформляли цифровые пропуска и отвечали людям на самые актуальные вопросы. Но это лишь малая часть огромной работы, которую нам предстоит выполнять. Мы будем обрабатывать все поступающие в популярных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обращения жителей. Я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делать это максимально оперативно — в течение 24 часов. Будем работать ежедневно и круглосуточно, в том числе — в праздничные дни,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лючевая особенность ЦУРа — специалисты от каждого ведомства находятся в одном помещении и работают сообща. Принцип «одного стола» позволяет решать проблемы с минимальной задержкой. Таким образом, ускоряется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ое и межуровнев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 Сбор и обработка обращений в цифровом формате позволяет создать, так называемую, «тепловую карту» проблем. С её помощью можно отслеживать наиболее острые вопросы и ситуации в каждом районе области. Причем, мы видим их в динамике, — рас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ЦУРа Владимир Кулешов.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обращений поступает от жител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связи с этим для их обработки задействуют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Об эффективности нового подхода губернатору по видеосвязи рассказал мэр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ергей Надсадin. Положительный пример — ситуация, связанная с ремонтом улицы Курильской. Люди давно просили уложить новый асфальт, предусмотреть пешеходные дорожки. Но, когда на площадку зашли рабочие, выяснилось, что по проекту часть деревьев — здоровых, с отличными кронами — необходимо снести. Жители были против. Мэр и специалисты оперативно выехали на место и встретились с активистами. В итоге в проект внесли корректировки, чтобы сделать участок улицы Курильской односторонним, при этом обустроить тротуары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требованиями ГОСТа и максимально сохранить деревья. Без участия специалистов информационно-аналитической платформы, вероятно, деревья бы снесли, как это было предусмотрено в изначальном проекте — из-за длительного срока обработки обращения.

— Год назад, когда было дано поручение главам мест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й присутствовать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я по различным причинам настороженно отнесся к этому, — поделился Сергей Надсадin. — Однако сейчас мы успешно эту работу наладили и видим результат от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людьми. Я практически каждое утро начинаю с анализа сообщений, поступивших в мои соцсети. На основе обращений, требующих оперативной реакции, формирую график своих инспекционных поездок.

В будущем офисы центра управления регионом появятся в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области. Несколько пилотных ЦУРов работают в декабре 2021 года. А в период с 2022 по 2024 годы площадки для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откроются во вс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районах региона.

Отметим, свои обращения жители области могут оставлять в личных аккаунтах губернатора по следующим ссылкам:

-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limarenko_official/);
- Facebook (<https://www.facebook.com/valery.limarenko>);
- Одноклассники (<https://ok.ru/valery.limarenko>);
- ВКонтате (https://vk.com/limarenko_official).

1500 сахалинцев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ую компетенцию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запускают программу опережающей подготовки, призванную снизить дефицит кадров.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была озвучена во время совета п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торый 28 сентября прове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Бесплатно пройти обучение смогут выпускники учреждений среднего и высшего профобразования, а также люди, которые ищут работу и те, кто занят в сферах услуг, торговли, транспорта и ряда други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процесс организован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стандартам WorldSkills.

— Мы начали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 заниматься повышением уровн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на Сахалине. Наша главная задача — подготовка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для базовых предприятий региона. Навыки и компетенции кадров должны отвечать потребностям и ожиданиям работодателя,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За год планируется обучить 1500 человек. Подать заявку можно на сайте: <https://сахалин.гособразование.рф>.

Внедрением программ опережающей подготовки занимается Агентство по развитию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Как рассказала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учреждения Анастасия Кожепенько, очное обучение будет вестис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олинске, Поронайске и Горнозаводске на базе 9 техникумов, колледжей и политехнических центров.

Длительность обучения — от 3 недель до 2 месяцев. Участник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совета заинтересовались: достаточно ли этого времени, чтобы освоить новую профессию?

— Участники программы начинают не с нуля — у них ест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у некоторых — опыт работы. Освоив новые компетенции, они получают свидетельств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образца и скиллз-паспорт, где отражен уровень владения каждым навыком. Работодатель, когда будет принимать специалиста на работу, сможет это оценить, — ответила Анастасия Кожепенько.

На выбор предлагается 34 востребованных компетенции. Среди них — сварочные технологии, добыча и переработка нефти и газа, веб-дизайн, кибербезопасность, администрирование отеля, парикмахерское искусство, ресторанный сервис, дошкольное воспитание, флористика и другие востребованные на рынке труда направления.

В конце обучения участникам программы предстоит сдать демонстрационный экзамен. На практическом испытании будут присутствовать потенциальные работодатели.

Чтобы наладить тесную связь между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обучением и запросом рынка труда, Агентство по развитию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занимается также разработкой корпоративных стандартов. По эт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ведетс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ведущими сахалинскими предприятиями: «Восточная горнорудная компания», «Сфера»,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и другими. Такие стандарты можно сравнить с техническим заданием для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по подготовке кадров.

В ходе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совета прозвучал также вопрос о перспективах рыб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в Невельске планируется организовать обучение специалистов для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зглавила рейтинг регионов по качеству оказания госуслуг в сфере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стал лидером эт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по итогам первого полугодия. Об этом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данные мониторинга оценки качества и доступ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 в сфере содействия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подготовленные Минтрудом РФ.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обеспечила исполнение всех нормативов доступности, включая первое место по обеспеченности госуслугами п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у обучению 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му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у образованию безработных граждан, по временному трудоустройству, и второе место по услуге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й поддержки безработных, — говорится в исследовании.

Отмечается, что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сохраняет лидерство среди субъектов РФ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качества и доступ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 на протяжении не-

скольких лет. Даже в сложной ситуации первого полугодия 2020-го область сумела остаться на первой строчке рейтинга.

Кроме тог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30 июня зафиксирован самый низкий уровень безработицы среди субъектов РФ — 0,83 процента.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мониторинга,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отмечены и по ряду других направлений. Так, в первом полугодии 2020-го область показала наивысший уровень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граждан, обратившихся за помощью в службу занятости — 57,3 процента. По России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ил 18,6 процента.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ел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семинар-совещание по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е

Он собрал специалистов из 11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а также сотрудников Федер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его подведомственных учреждений и партнёр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В течение двух дней, с 26 по 27 сентября, участники семинара обсуждали актуальные вопросы развития сферы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и обменивались опытом.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 словом к ним обратился советник руководителя Федер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Сергей Степанов. Он отметил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организации мероприятия и зачитал приветственный адрес руководителя Росмолодежи Александра Бугаева.

— Это уже седьмое совещание в этом году. Подобные встречи мы проводим ежегодно в кажд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страны, чтобы обменяться опытом по ключев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работы и, самое главное, услышать мнение коллег, ответить на все возникающие вопросы, — отметил Сергей Степанов.

От имени главы регион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обравшихся приветствов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Он рассказал о главных проектах в сфере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которые реализовали в этом году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 их числе — всероссийский молодежный патриотический форум «ОстроVa-2020», который прошел в начале сентября и собрал более 1000 участников со всей страны.

— Для нас — всегда большая честь принимать коллег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России. Рассчитываю, что работа семинара-совещания принесет новые решения для ведения эффективной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В этом году отмечается 75-летие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и 75-летие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это особая дата. В этом году мы впервые вместе со всей страной отмечали 3 сентября как День воинской славы России. В честь этого была проведена большая поисковая работа, организована масштабная историческая реконструкция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на Сахалине. Хотелось поблагодарить коллег из Приморья и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которые помогли сахалинцам и принимали самое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этих мероприятиях, имеющих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для воспитания молодежи, — подчеркнул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Во время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семинара также состоялось награждение специалистов в сфере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от Росмолодежи получили пятеро сахалинцев: Дмитрий Минязев, Ольга Новикова, Ольга Матысик, Светлана Власова и Мария Никулина.

Всего семинар собрал около 50 специалистов. Среди них — Иван Апонюк.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возглавляет Центр содействия развития молодеж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который объединяет своими проектами более 150 тысяч человек.

— Мы активно занимаемся развитием волонтерского движения, поддержкой инициатив, молодеж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Это комплексная работа. На семинаре мне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побывать на лекциях о грантовых проектах, работе со СМИ. Надеюсь услышать новые практики, которые мы внедрим у себя в регионе, — поделился Иван Апонюк.

В течение презентационной части первого дн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проконсультировали по вопросам применения и внедрени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стандарта «Специалист по работе с молодежью», 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молодежи и ключевым событиям Года памяти и славы, участники прослушали выступления о федеральном проекте «Социальная активность», деятельност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студенческого корпуса спасателей, Росси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школьников и о вовлечении молодежи в волонтер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Завершился первый день семинара работой участников по секциям: «Грантовое сопровождение», «Организация волонтер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атриотическое воспитание», «Год памяти и славы»,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освещение» и «Российское движение школьников».

27 сентября прошли тренинги, нацеленные на повышение эффективности работы с молодежью.

Организатором семинара-совещания выступило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совместно с агентством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사람이 비우면 자연은 채웁니다

사람의 손길이 멈춘 자리에
나비가 날아들고 새들이 지저귀니다.
사람의 발길이 잦아든 자리에
푸른 열매가 자라고 붉은 꽃이 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푸른 세상을 꿈꿉니다.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대회에 참가한 모든 팀에게는 상장과 맛있는 간식이 부상으로 수여되었고,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대회 상장이 새겨진 상패가 수여되었다.

Южносахалинцы сыграли в РИСК

25 сентября Центр молодёжных инициатив, совместно с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ым комплексом "Победа" и Сахалинским молодежным ресурсным центром, провели для молодеж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сенние команд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РИСК ("Разум, интуиция, скорость, команда").

На битву умов в исторический парк "Россия моя история" пришли 11 команд – это сборные школ города, Сахалин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СахГУ, кванториума и друг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Южносахалинцам предстояло ответить на три блока вопросов. Задания блоков включали в себя факты о произведениях живописи, из истории России и космонавтики, музыки и др. Особенность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РИСК в том, что счёт игры может кардинально измениться на последнем блоке. Ребятам предлагалось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выбирать вопросы, в ответах на которые они уверены, и умножить "стоимость" заданий на 2 или 3.

Победителем соревнований стала команда Maxfunt. Командам "СоСНОвые шишки" и "ИстФак" достались второе и третье места.

Центр молодёжных инициатив проводит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РИСК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с 2018 года. Они способствуют расширению кругозора, пробуждению у молодёжи интереса к истории, традициям, культуре России и ее выдающимся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Ребята получили заряд положительных эмоций и приобрели новые знания.

Все команды – участники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лучили грамоты и вкусные призы, а победителей ещё наградили памятными знаками с символикой игры.

한국인, 코로나 바이러스 경각심 더 높아

한국인들은 미국, 일본, 영국 등 타국가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Pew 리서치 센터는 14개 선진국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재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고, 한국에서는 감염병 확산을 가장 큰 위협으로 꼽는 응답자가 89%로 1위를 차지했다.

감염병 확산을 가장 큰 위협으로 꼽는 응답자는 일본에서 88%, 미국과 스페인은 78%, 영국과 프랑스는 74%로 나타났다. 유럽에서는 여전히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전염병보다 기후 변화를 더 큰 위협으로 보고 있었다.

연구소 측은 "COVID-19 대유행이 전 세계의 헤드라인을 지배했던 한 해 동안, 14개국에서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염의 확산을 자국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보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예년에는 기후변화와 테러리즘이 주요 위협요인으로 파악됐다. 올해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세계 경제 상황과 사이버 공격 또한 주요 위협으로 꼽았다."고 밝혔다.

Южнокорейцы опасаются коронавируса больше, чем граждане других стран

Южнокорейцы опасаются коронавируса больше, чем граждане других стран, таких как США, Япония и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данные опроса.

Американский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центр Pew опросил жителей 14 развитых стран, задав вопрос, в чем они видят самую большую угрозу. Список возглавила Южная Корея, где 89 процентов респондентов самой большой угрозой назвал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инфекцион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В Японии цифра составила 88 процентов, в США и Испании 78 процентов, а в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и Франции 74 процента. В Европе большинство жителей все еще считают изменения климата более опасной угрозой, чем эпидемии.

«В год, когда пандемия COVID-19 доминировала в заголовках газет по всему миру, неудивительно, что большинство опрошенных в 14 странах видят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инфекции основной угрозой для их стран», – сказали в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м центре. – В предшествовавшие годы основными угрозами называли изменения климата и терроризм. В опросе этого года среди основных угроз респонденты также называли глобальн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и кибератаки».

(사할린주 및 한국 언론기관 자료에서)



SAKH.COM • БИЛЕТЫ

КИНО

ТЕАТР

КОНЦЕРТЫ

**Ваш портал в мир
развлечений!**

Вы можете купить билеты

на сайте **bilet.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билет.сах.ком**

Загрузите на **Google play**

Загрузите в **App Store**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г (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
--	---	--	---	---	--